

‘터미널 베스트셀러’ 무엇이 문제인가

가판대에서 잘 팔리는 책들... 불법출판된 덩핑물 적어지는 추세

교통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일일생활권의 편의성이 소득증대로 인해 보편화된 여행문화와 맞물려 찾아진 여행길에서 읽히는 책들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터미널 베스트셀러’라는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 팔리는 책들은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지닌다. 가장 큰 이유는 도서구입의 목적이 여행의 지루함을 달래는 단순성을 띠는 데서 비롯되며, 따라서 선택되는 책들의 성격은 읽기 편한 흥미위주의 것들로 한정되게 마련이다. 예를들어 대형서점이 집계한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쉽고 재미있는 책들이나 추리소설, 여기에 여류작가들의 수필집과 대중소설들이 판매대를 장식한다.

특히 터미널도서 가운데 꾸준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추리소설. 판매량의 기복없이 스테디셀러로서의 인기를 누리는 추리소설은 독서의 목적과 버스나 기차의 실내 공간이 갖는 특성에 어울린다는 점에서 주가를 올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들이 고작 3.4개월의 유행기간을 거치는 것과 달리 이 책들은 유행과 무관해 등락폭 없는 ‘롱런’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나름의 강한 성격을 지닌 터미널도서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출판·서점업계에서 제기돼 주목을 끌기도 한다. 불건전한 내용의 덩핑물들이 판을 치던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개선된 점도 있지만 독자들의 호기심과 그릇된 독서습관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즉 서점의 기능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일부에선 독자의 편의를 도

모하는 이들 판매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중소설 및 추리물이 주류 이유

터미널이나 역사에 마련된 도서판매대를 둘러보면 편편일률적인 장서구성을 짐작하게 된다. 적게는 2.3평에서 10평이 넘는 매장 전면에는 30여종 정도의 도서와 잡지·신문이 진열돼 있으며, 뒤로 보이는 책꽂이에는 평판진열된 책들의 재고가 10여부씩 꽂혀 있다. 매장면적의 분할은 판매량을 고려해 절반씩 도서와 잡지코너로 이루어진다.

단행본·아동물·만화로 크게 구분되는 이 도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몇가지의 특징이 밝혀진다.

첫째는 4.5년 전부터 독자들의 인기를 끌며 자리잡은 이른바 일반적 베스트셀러, 둘째는 국내의 유명작가들의 추리소설, 그리고 세번째로는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전략을 펼친 출판사들의 대중소설들이 터미널도서의 주종을 이룬다.

독자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터미널로 유입되기 시작한 베스트셀러들도 점차 많은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베스트셀러에서는 밀려났지만 작가의 대중적인 인기를 업고 독자들의 손길이 자주 닿는 책들도 적지 않다. 국내작가로는 이문열·이외수·신달자·유안진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고 외국작가들도 여럿 된다. 그 가운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며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작가가 시드니 셸던으로 무려 대여섯권의 작품들이 진열돼 있어 인기도를



덩핑물들이 전시, 판매되는 기차역 할인매장.

자랑한다.

터미널도서가 일반서점가의 책들과 크게 변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추리소설의 절대적인 판매 강세를 들 수 있다는 것이 판매원들의 얘기다. 앞서 예를 들었던 시드니 셸던의 경우만 봐도 추측이 가능하지만 김성중을 위시한 국내작가들의 작품 또한 독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판매양상은 추리소설만을 위주로 출판하는 전문출판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도 한몫을 차지하는데, 아쉬운 점은 충실하지 못한 번역과 선정적인 표지로 도배된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시선을 끌기 위한 알뜰한 상술이 금세 눈에 띈다.

베스트셀러, 추리소설과 함께 삼파전을 벌이는 게 TV와 라디오를 통해 광고공세를 취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대중소설들. 이 책들이 팔리는 이유에 대해 한 판매원은 “이런 책들을 찾는

대개의 독자들은 도서정보를 TV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전했다.

차 안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퍼즐’도

요즘들어 부쩍 물량이 폭주하는 것은 만화. 대개가 스포츠신문에 연재되었던 작품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인데, 청소년과 2,30대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어, 노골적인 성묘사와 잔혹한 폭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이곳에서는 여행객들에게 인기있는 품목으로 부상되고 있는 새로운 상품들도 더러 눈에 띈다. 등산안내지도나 교통지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차안에서 혼자 즐길 수 있도록 편집된 「날말퀴즈」 「퍼즐 한마당」 「퀴즈광장」 등 날말 맞추기 책자들이 선을 뵈 아이디어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디자인

디자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희 여름새벽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의 경험과 감각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서 저희는 최선의 결과를 의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한해 동안의 가르침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일하는 가운데 또 한해가 지나갑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여러 출판사의 사장님과 편집부장님·영업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그래픽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출판디자인(표지·본문·출판광고)과 편집은 현장에서 독자와 부딪치는 분들의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훌륭한 클라이언트가 좋은 디자인을 만든다’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특히 출판디자인 분야인 듯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3년 동안 여름새벽이 거둔 성공은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디자인과 편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120-180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2-63호 302호/전화 325-4963·4/팩스 325-4965



편집

시간은 없고, 디자인도 생각해야 하고... 이런 책의 편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저희는 가능한 상황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행본·잡지·사보·카타로그 편집

버스터미널 등의 가판대에서

잘 팔리는 책중 대표적인 것이

추리소설로, 예컨대 시드니 쉐런과

김성종의 작품들이 특히 강세를

보인다. 여기에는 추리소설만을 펴내는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한몫을

차지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대개의

책들이 선정적 표지와 충실치 못한

번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3대 고속버스 터미널인 동서울·상봉·강남 터미널의 도서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송죽문화사에 따르면, 터미널의 도서판매대가 가장 바쁜 것은 역시 토·일요일과 공휴일. 터미널 세곳에 모두 30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판사와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출판사들로부터 총판에 해당하는 마진율을 보장받고 도서를 구입한다.

터미널의 도서판매에 비해 기차역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편에 속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주력하는 입장이어서인지 기본적으로 도서판매대의 수가 적다. 홍익회 청량리 지부의 경우 의정부역에 서점을 개설해 놓고 있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성북역에 설치된 매장은 할인매장이다.

이 재고도서 할인매장에서는 정작 재고도서보다 덤핑도서가 더 많이 진열, 판매된다. 출판

공사라는 그럴듯한 제작처로 오인되기 쉬운 비정규출판사들이 펴낸 이 덤핑물들은 추리·애정소설, 세계명작, 쿼미·오락서들이 주요 메뉴로 책가격도 500원부터 1500원까지로 정상물들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일부 도매서점과 지하출판사들이 출판한 이 조악한 책들은 사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공공연히 판매되었었다. 그러나 현재는 독자들의 외면으로 길거리로 내쫓긴 상태. 채산성이 부족하고 독자들의 무관심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옛 지형에 의해서만 제작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많게는 한번에 수십만 부씩 제작돼 역부근이나 터미널 근처의 리어카상인과 좌판업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유통되는 이 도서들은 거의 선정적이란 이유에서 눈흘김을 받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길거리 출판물들의 유행성도 심각한 정도로 판단되지만 터미널과 역내에서 판매되는 도서들도 마찬가지다. 도서의 경우 덤핑물이 정상물로 대체되면서 여과된 상태를 보이기는 하는데, 함께 전시된 잡지들은 단지 정상적인 출판행식을 갖추었을 뿐 책장을 들춰보면 그 정도가 오히려 예전보다 심해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향인 판형의 확대 추세 속에서 더욱 대담한 사진들이 인쇄상태가 양호한 채로 실려 있다. 여기에 성인용 만화들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을 자극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로까지 지적된다. 표지 등에 성인용이란 표시는 했어도 판매단계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마구잡이로 취급되며, 아동용 만화 또한 「권법소년 용

소자」 「성투사와 흑사권」과 같이 대부분이 폭력장면 일색이다.

이렇게 선정성과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 도서들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데 대해 YMCA 청소년상담실 한명섭씨는, “성인잡지나 음란도서의 주요 고객이 청소년층인 것은 여러번의 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면서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지식을 전달하고 향락 퇴폐문화를 전달하는 이런 도서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규제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덧붙여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유통구조의 변화를 촉구했는데, 포장판매·주문우편배달 등으로 유통체계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서가 아닌 소비품으로서의 책

이에 대해 일선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이렇게 얘기한다.

“음란의 한계가 모호한 것도 인정해야 한다. 출판사의 양식을 의심케하는 도서들도 개중에는 섞여 있다. 그러나 이런 도서들은 이미 독자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발견되면 즉시 반품된다. 그렇지만 많은 분량의 도서를 일일이 기준도 없이 식별해 가려내는 일은 어려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판매도서의 질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른 반론도 가능하지만, 아예 이들 편의적 요소가 짙은 도서판매대 자체에 대한 회의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상서점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이 편의점들이 도서판매의 전근대적인 판매방법을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덤핑도서를 진

열하고 세일을 하는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 더욱이 그때 그때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집중적으로 전시해 독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곁해 서다.

“덤핑도서들이 아닌 정상출판물들이 취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세일행위나 해적·표절출판물들이 가판대를 통해 유통된다면 대책을 서둘러야 마땅하며, 연금매장·할인판매장의 도서판매는 문제삼을 일이다.”

전국서적상연합회의 김석용회장의 지적대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해치는 도서유통은 급히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도서의 구입이 규모를 제대로 갖춘 서점을 찾아가야만 가능하다는 불편을 제거해주는 편의점도서의 효용성을 높이 사는 측도 있다.

장소와 독자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판매는 책이 장서의 의미에서 소비품으로 전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려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으로, 이들 판매기구가 전문성을 띠지 못하고 단순한 책장사로 전락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유통현대화 작업에 이들 기구를 편입시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기왕의 터전을 굳혀온 터미널과 역내의 도서판매대를 새로운 독서운동의 한 방편으로 삼는 것이 생산적인 발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 최태원 기자

출판경영관리 프로그램

“퍼블 마스타”

퍼블마스타를

출판사의 재고, 판매 및 영업분석 관리, 반품분석, 인사급여 등
탁월한 경영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3년간의
개발기간과 문예출판사 외 10여 출판사의 전산화 성공을 바탕으로
완성된 저렴한 범용 시스템입니다.

첨단의 소프트웨어 개발기법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퍼블마스타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개방형 구조로 어떤 출판사에도 적용과 확장이 가능합니다.

단 10분의 사용자 교육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4개의 입력자료로 300여 종류의 경영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 : 145만원 (부가세 별도)

선택한 이유!

(주)아이픽스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32-11 (주)아이픽스 영업부
전화 / 02-393-5437(대) 팩스 / 02-393-5439